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총력

진안군, 상반기 군 민생안정지원금 경험 살려 신속 지급 추진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이다. 지급액은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온라인) : 본인 소유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신용·체크카드(오프라인) : 본인 소유 카드사 방문 신청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check 앱 신청 △선불카드 : 본인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단, 첫 주인 7월 21일에서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적용된다.

이후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군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상반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자체 지급해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안

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소비 쿠폰 지급 또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반을 구성해 인력관리반, 지급절정반, 현장대응반을 구성하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창구 운영을 위한 단기 보조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지급 누락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촌층별 행정망을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일본 히가시카와정, 우호교류 본격 재개

최훈식 군수, 히가시카와정 방문

장수군이 우호도시인 일본 히가시카와정(東川町)과의 공식 국제교류를 본격 재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히가시카와정을 방문해 우호교류 재개의 뜻을 확인하고 양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수군과 히가시카와정은 2013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 19 이전까지 행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단 파견, 학술행사, 지역축제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중단된 대면 교류를 6년 만에 재개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방문단은 히가시카와정정을 찾아 기후지 정장을 공식 면담을 갖고 행정, 문화, 관광 등 상호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군수는 “장수군과 히가시카와정



장수군이 우호도시인 일본 히가시카와정(東川町)과의 공식 국제교류를 본격 재개하기로 했다.

은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이 매우 닮은 지역이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히가시카와정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복원하고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지 정장은 “장수군은 오랜 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인연이 깊은 지역으로 히가시카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기적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 예전처럼 교류를 재개해 양 지역이 상생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서 히가시카와정의 고품질 정미시설인 라이스 터미널, 주민커뮤니티시설, 파크골프장 등 정책 우수사례를 시찰했으며 교육·농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교류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벼 무인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벼 무인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1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무인 드론을 활용해

406ha(일반 394.7ha, 친환경 11.3ha) 규모에 단기간 공동방제를 펼친다.

올해 벼무인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지는 총 762명으로, 2,507필지에 해당된다. 단, 경영체 미등록 필지를 비롯

해 벼 이외의 작물 재배 농가, 무인공동방제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방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농어촌공, 감사패 상호 전달

임대형 스마트팜 1단계 조성 기념... 협업 성과 공유·추진 방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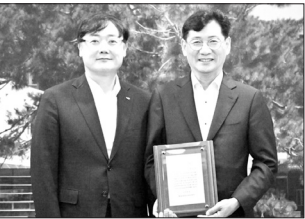
장수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기념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감사패를 상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단계사업 준공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 9명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장수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장수를 두산리 일원에 8.9ha 규모의 부지에 40ha 임대형 스마트팜 3동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다.

지난 6월말 1단계 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준공돼 8개팀 24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했으며 최근 토마토 정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했다.

장수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84억8000만 원을 투입해 7.0ha 규모의 부지에 4.0ha 임대형 스마트팜 3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익창출은 물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정일 무주 부군수, 국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요청

무주군이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들을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5일 최정일 부군수(사진)와 건설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국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신속 추진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신규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무주 설천 심곡~두길

(국도 37호) 2차로 개량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등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 △대전~남해 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무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기반을 하계올림픽 유치 인프라인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를 불러줄 매우 중요한 교통망”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과 물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쟁력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개막공연 섭외 혼선 공식 해명

장수군이 오는 9월 예정된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개막공연과 관련해 가수 섭외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15일 공식 해명하고 사태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개막식 축하공연은 JTV(정주방송)가 주관하는 JTV 특집 공개방송으로 기획됐다.

운영대행사인 JTV는 에이전시를 통

해 행사의 흥행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기 가수 소녀시대 태연의 섭외를 적극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섭외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공식배포하지 않고 제작 준비 중이던 사전 리플릿과 포스터 시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출연진 섭외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 구역 신규 지정

무주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주읍과 살천면 지역의 택시 승차대 6곳을 새로운 금연 구역으로 지정(2025. 7. 9.)했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무주읍 유산리조트, △무주읍 공동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원터, △구천동 관공특구, △살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다. 해당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에 들어간다.

이지역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에는 금연 구역 1,257곳이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9)로도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일자리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15일 ‘씨없는 꽃감 마을’ 휴양관에서 일자리 유관기관들과 고용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안군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진용),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박미희), 진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주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진안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줄여 취업률과 정주 인구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운영 △일자리 창출 상호 지원체계 활용 △이주인 지역정착 프로그램 연계 △지역 우수 기업체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